

특별취재



정읍시 민원실, 친절행정 다짐

정읍시 민원실 직원들은 매일 업무 시작 전 친절과 감동행정을 다짐한다. 지난 8월부터 8시 50분이면 전직원이 모여 활기차게 친절구호를 외치며 친절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

직원들은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인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매일 직원들이 릴레이로 자신의 친절구호를 발표하고 다함께 구호를 제창한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일과 시작 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연습함으로써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활력도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정성을 다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사업’ 추진

김제시에서는 k-water와 위수탁 대행사업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용수공급시설이 각종 절차와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가 결정되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은 공업용수 원수인 정수를 침전수로 변경하고자 전주광역에서 급수광역으로 급수체계 변경하는 사업이다.

관로 변경 사업규모로는 익산시 오산면에 위치 한 급수광역 관로에서 분기하여 익산시 목천리에 위치한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용수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4.8km, 사업비 40억원(국비)이 소요되며, 2017. 5. 30까지 관로매설을 마치고 통수시험을 거친 후 2017. 6. 30까지는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가 공급됨에 따라 용수공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 전기전자, 식료품관련 업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침전수로 변경할 경우 약 32% 정도의 사용료가 절감되어 기존 입주업체도 수도요금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현재 산업용지 65%이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등 각종 주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유치 전망이 매우 밝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결실

김제시가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설치사업과 용지주민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건설 김제시장이 행정자치부와 관련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지역출신 공무원연구원 그리고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동심협력하여 사업설명과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제시는 베이비부머, 은퇴세대의 안정적 직업훈련과 청소년의 진로 설계,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사회재진출 방안을 모색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는 체계적 학습설계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그간 문화시설의 부재로 불편함을 겪었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설 시장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건설을 위해 국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장에 나눔길 조성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 전주시와 함께 총 5억3천만원 들여 정읍사공원 뒤편에 조성 예정

정읍시 ‘무장에 나눔길 조성사업’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17년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전북도 14개 시, 군 중 전주시와 함께 최종적으로 선정돼 내년 초 사업비 5억3천만원을 투입해 정읍사공원 뒤편에 ‘무장에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시유림 중 식생이 양호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정읍사공원 주변으로, 편백수

과 단풍나무 숲이 조성돼 있어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산책로와 계단으로 인해 보행 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목재 데크와 숲 속 쉼터 등을 조성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시행되는 아양산 도시 숲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한

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 약자들이 청정한 숲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숲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심 속 숲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장에 나눔길 조성사업’은 보행 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케이디테크(대표 김남기)와 손잡고 정읍산 쌀을 서울지역에 직판(直販) 공급하기로 했다.

정읍시, ‘케이디테크’와 손잡고 서울에 정읍쌀 직판 공급

4t 첫 출하에서 올해 안에 월 100t까지 늘려나가기로

정읍시가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케이디테크(대표 김남기)와 손잡고 정읍산 쌀을 서울지역에 직판(直販)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오후 처음으로 4t(20kg 들이 200포대)이 공급됐다.

이 쌀은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 소재한 산업체들의 단체급식에 쓰일 예정으로, 칠보면 백암리 덕두농동조합 법인 도정 공장 제품이다.

시와 케이디테크는 우선 주당 4t으로 시작하며 올해 안에 월100t(5천포대)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직판 쌀에 대한 수요자 측의 평가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나간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정읍 쌀 직판 성사와 관련해 “식자재 대량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력관

계를 맺고 쌀 직판 공급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케이디테크가 대형 케이팅(항공 기념식)회사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정읍지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와 고춧가루 등 가능한 모든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사들이 함께 쌀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발 관로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옥상 등 빗물 활용 녹색 공간 만들기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김제시 옥상과 주차장 등에 빗물을 활용한 정원과 녹화 공간이 조성된다.

환경부의 맑은 물 정책사업의 하나인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조성하여 불투수층의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건강한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사내에 투수블럭 주차장조성과, 빗물정원,

옥상녹화 및 침투도랑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2016년 10월안에 공사를 시행해 2017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김제시는 전면 광장 및 주차장을 투수블럭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면 광장 차랑의 진출입을 27일까지 통제한 예정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구간을 4개 공구로 분리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직원들

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최근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고밀도화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않아 비점오염원이 늘어나고 물 순환 약화, 하천 건천화 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김제시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지하수 고갈 해소와 수질환경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서식 개정”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최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내년도 김제시의 전반적인 시정방향을 사전과파악하기 위한 자리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2017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된 중요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 김제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의 내용 중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

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표기하도록 일제히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병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남동에서 지난 7월 5일부터 호주와 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세계적인 초밥체인점이자 농산물유통회사인 다이와푸드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김제지역의 쌀을 매일 15톤씩 수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국내외적으로 우리지역 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내시장의 쌀값 하락이 지속됨으로 인해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지역농협에서는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산내면 멧돼지 소탕 벌여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발자국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 산내면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멧돼지 집중포획기간으로 정하고 소탕 작전을 펼쳤다

산내면은 “산내면은 지역 특성상 발자국이 많이(농작물의 8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이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포획 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정읍시지부(단장 황병선) 6명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소탕작전을 실시,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편 멧돼지는 유해조수로 분류돼 있다. 면에 따르면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 현재까지 산내면에서만 5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시 필요한 취업기초소양교육 '나만의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2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취업기초소양교육 '나만의 컨설팅' 진행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창구)는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시 필요한 취업기초소양교육 '나만의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2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했으며 오는 4일 2회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개별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30여명이 신청해 실시됐다. 2일 1회차 교육은 이미지메이킹 교육으로 지역사회 기업체 아모레퍼시픽 부안사부특약점(대표 나민규)의 후원으로 직장인의 메이크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오는 4일 2회차 교육에서는 직장생활 기본수칙 및 규범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절이나 직장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 향상 및 역량 강화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취업 정보 제공·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장인의 메이크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성과 감성을 깨우는 문화가 있는날

김제지평선아카데미 건강관리 강연 등 프로그램 풍성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문화가 있는 날, 지성과 감성을 깨워라!'라는 테마로 온 산을 울긋불긋 물들인 단풍잎을 바라보며 고요한 마음속에 감동이 솟아나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감성과 지성을 깨우는 이야기들로 김제 시민을 찾아간다.

11월 17일(제488회)에는 정대성 비전택시대학 총장을 초청 사업실패와 더불어 가족을 잃고 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한 직업과 가슴 설레는 꿈을 꾸며 직업의 존귀함과 비전을 찾을 수 있었던 이야기 주제로 생체 나이를 되돌려 줌을 준비했다. 특히, 이날은 봉남면 주민들이 함께하는 지평선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봉남면 주민자치센터 품물교실의 신나는 한판종물놀이도 함께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다문화가족 소통 토론회 개최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2일 부안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특화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다(多)문화가 행복한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7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화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으며 부안군 12개 읍·면 및 국적별 참가자를 공개모집·선발해 결혼이주여성의 생각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종규 부안군수와 부안군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살기 좋은 부안 민들

기'를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다문화가족의 당면문제인 자녀교육·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 강화·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강화 영역을 주제로 5개 분임으로 나눠 분임토의를 한 후 분임발표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에 반영해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부안군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